

관광대국 튀르키예를 탐하다

⑩ 파묵칼레, 언덕 위 하얀 천국

누가 목화로 꾸몄을까... 석회암 언덕 거대한 백색천지 '압권'



파묵칼레 남쪽에서 망원경으로 잡은 아침 풍경. 송림 우측은 고고학박물관이다.



투박한 항아리에 꾸민 이색적 장식물.



튀르키예는 세계 최대 살구 생산지다.



앞쪽은 파묵칼레, 뒷쪽 큰 도시는 주도인 데니즐리, 중간에 석회암 민둥산이 인상적이다.



화이트 헤븐 호텔의 이국적인 조경.

파묵칼레는 튀르키예 관광을 다녀왔거나 가까운 장래에 계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겐 소중한 장소다.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세계 5대 관광대국을 찾아 몰려들더라도 파묵칼레가 결코 빠뜨릴 수 없는 명승지라고 하더라도 내가 관심이 없으면 다 소용없는 일이다. 내가 그곳으로 여행을 떠날 생각이 없다면 다 관심 밖일 수밖에 없다.

지난회 소개한 것처럼 파묵칼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자연 비경과 오랜 인류 문화를 간직한 곳이다. 튀르키예를 찾는 전세계 관광객이라면 발을 딛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이다.

파묵칼레를 찾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면 훗날 다시 찾게 되는 곳이라고 단정해도 된다. 그만큼 이곳은 산성성이에 드넓게 형성됐고 각종 관광 길러몬테트로 도배돼 있다. 찬찬히 들여다보고 다 체험하자면 이들은 죽히 잡아야 한다. 만약 일대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싶다면 산등에서 더 높이 오르는 등산까지 해야 되니 그럴 경우 시간은 더 필요하다. 2000년 전 클레오파트라가 입욕해 피부의 건강까지 챙겼다는 클레오파트라 앤틱 풀 온천에서 힐링이나 미용체험까지 하자면 시간은 더 걸린다.

고대시대 장기요양을 왔다가 고국에 돌아가지 못한 귀족과 왕족들이 편안하게 하얀 천국인 북방산(히에라폴리스)에 묻혔는데 그들

처럼 느긋하게 머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긴 시간 두고 음미하며 체험·즐기는 곳

구내 고고학박물관에서 역사문화관광에 매료된다면 시간은 더 빨리 흘러갈 것이다. 트래버틴 온천지구가 넓고 지형이 복잡한데다 구석구석 답사하고 다양한 체험을 해도 시간은 유수처럼 지나갈 수밖에 없다. 뜨거운 온천수는 지형에 따라 다양하게 모양과 속도로 흘러 내린다. 석회석을 함유한 온천 물줄기는 곳곳마다 바닥에 다른 물결무늬를 만들었고 수량에 따라 물웅덩이 비색마저 조금씩 달리 보이는 천하 비경이다.

이렇게 좋은 곳을 전날 석양에 도착해 서둘러 관광을 한 뒤 어둠 속에서 북으로 퇴장했으니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재입장은 하지 않더라도 주출입구인 남쪽 언저리에 가보고 싶었다. 카파도키아를 향해 먼 길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서두르는 일행에게 양해를 구해 남문 쪽으로 드라이브했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니 파묵칼레 전경이 보이는 곳에서 차를 세우고 망원경으로 원경을 잡았다. 차를 돌려세워 장거리 이동을 시작했다. 파묵칼레에서 카파도키아까지는 광주-서울 왕복거리보다 더 먼 거리이니 여행자의 심리는 쫓길 수밖에 없었다. 원거리 도중 경유하는 코니아(코아)는 11세기 셀주크 제국 수도인만큼 오랜 역사와 문화를 자랑

파묵칼레, 자연비경·문화유산 간직 등산·엔틱폴온천·히에라폴리스 천천히 즐기려면 죽히 이들은 걸려

트래버틴 온천지구 역사 관광도 뜨거운 온천수 지형따라 흐르며 다양한 물결무늬·웅덩이 만들어

코니아, 11세기 셀주크 제국 수도 뜨거운 태양 중부고원지대 대평원 세계 생산량 21% 차지 살구 영글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튀르키예인들이 사진촬영을 요청해 한컷 찍었다.

하는 매력적인 관광도시다. 하지만 시간상 촉박하다보니 과연 조금이라도 살펴보고 갈 수 있을까 걱정됐다. 우리는 현실이 됐다. 외곽으로 지나가야 했으니 유명한 메블라나 박물관과 고건축물, 대상인들의 숙소인 '오브룩한' 등을 주마간산 격으로도 보지 못했다.

●백색 천국 호텔, 이름값하다

파묵칼레라는 지명은 이곳에서 대량 생산되는 '목화(Pamuk)'의 개슬(Kale)'이라는 의미다. 하얀 석회암 언덕이 하얀 목화로 만든 성채처럼 보여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다.

숙소는 소도시 남쪽 대로변에 자리잡은 깨끗하고 시설이 좋은 'White Heaven Hotel'이었다. 세계적인 관광지답게 깔끔하고 멋진 새로운 호텔이니 100유로가 넘었고 그간 묵은 호텔 중 가장 딜릭스했다. 호텔 안팎 인테리도 참으로 신기하고 맘에 들었다. 이 호텔은 이름 그대로 하얀 천국인 파묵칼레 역사성과 상징성을 살린 조형물과 시각적인 디자인이 매력적이었다. 호텔은 한국의 육송비슷한 곧은 줄기의 거송 그늘 아래 건축해 대로변이지만 아늑한 느낌을 줬다. 조경도 훌륭해 보였다.

고대 왕족과 귀족은 온천욕이 필요한 질병을 얻으면 머나먼 이곳까지 찾아와 장기요양하면서 고향에 기세등등 귀환하기를 고대했다. 인명재천이듯이 모두가 다 돌아갈 수 있

었던 것은 아니었다. 유력자인 그들은 부유했기 때문에 고상한 석관에 안치됐다. 최후까지 호사를 누린 것. 마지막 황천길도 눈부신 천국을 기대하며 그나마 위로를 얻었을 터다. 임종까지 시종을 드는 하인들의 손길과 수발에 외롭지만도 않았을 것이다. 천국은 사람마다 이렇게 많은 비극과 희극을 담고 있다.

●카파도키아 가는 길서 만난 풍경·사연

온종일 가야 하는 카파도키아 길은 멀어서 단조로웠다. 중부고원지대 대평원은 비록해부러웠다. 그래서 고대부터 수많은 세력이 이 지역을 뺏고 빼앗겼다. 따가운 태양 아래 세계 생산량 21%를 차지하는 살구가 영글어가고 있었다. 구름 위에는 풍력발전기가 돌아가고 너른 들판에선 옥수수과 목화가 생산성을 자랑하고 있었다. 풍요로운 이곳에는 제비도 인가 지붕 아래 세들어 살고 있었다. 우연히 만나 터키인들이 다가와 사진 찍기를 청한다. 다음 편은 별천지인 카파도키아 입성과 야외 박물관 체험, 열기구 체험 등을 다룬다. 역시 카파도키아는 터키여행의 대미가 아닐 수 없다.

김성후 동시대 명예교수

